

시편 114편 묵상 -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떨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소와 왕국이 됩니다

시편 114편; 히 12:26-27

개역	사역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을 떠날 때에
2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2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다.
3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3 바다가 보고서 달아나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나도다.
4 산들은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4 산들은 숫양처럼 뛰어오르고 언덕들은 새끼 양처럼 뛰어오르도다.
5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쩔이며 요단야 네가 물러감은 어쩔인고	5 바다야, 어찌하여 달아나느냐? 요단야, 어찌하여 물러나느냐?
6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은 어쩔인고	6 산들아, 어찌하여 숫양들처럼 뛰어오르고 언덕들아,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어오르느냐?
7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7 온 땅아, 너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어라.
8 저가 반석(磐石)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8 그분은 바위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도다.

‘출애굽의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첫째 시편인 113편은 여호와께서 죽음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높은 데에 두신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4편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시내산이 요동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삼고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도 상류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뒤로 물러나서 육지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그 산이 흔들린 것처럼, 가나안의 산들과 온 땅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과 언덕, 바다와 강이 떠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사이에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성소와 왕국이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홍해와 시내산이 여호와 앞에서 떨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사실을 노래합니다. 가나안의 산들과 온 땅이 떨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성소와 왕국이 되는 구원이 이루어짐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는 것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114편의 주제입니다.

114편은 여덟 절인데 1-2, 3-6, 7-8절로 나누어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이 시편을 읽어가겠습니다.

1. 성전과 왕국이 된 이스라엘 (1-2절)

-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을 떠날 때에
- 2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일을 가리켜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을 떠난 것’ 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사는데, 언어가 다른 곳에 산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거나 종살이를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언어가 다른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풀려나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그분의 왕국이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바로의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성소와 왕국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인이 상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다음에 부른 노래에 그들이 여호와의 처소와 성소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 15:17)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왕국이 된다는 이 놀라운 내용은 또한 단지 노랫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와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출 19:5-6).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써 그 땅을 성소로 삼겠다는 약속도 성취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이 시에서는 바다와 강, 그리고 산들의 요동함을 들어서 묘사합니다.

2. 강의 물러남과 산의 요동함

- 3 바다가 보고서 달아나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나도다.
- 4 산들은 솟양처럼 뛰어오르고
언덕들은 새끼 양처럼 뛰어오르도다.
- 5 바다야, 어찌하여 달아나느냐?
요단야, 어찌하여 물러나느냐?
- 6 산들야, 어찌하여 솟양들처럼 뛰어오르고
언덕들야,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어오르느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소와 왕국이 되는 것을 보고 바다와 강, 그리고 산들이 요동하였습니다. 3절에 나오는 바다는 홍해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는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봄철이어서 물이 강둑으로 넘치는 시기였지만, 그 큰물도 뒤로 물러서게 하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무엇을 보고서 물러섰는지는 이 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달아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2절에서 말하는 ‘그분’ 을 보고 물러났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13편에서는 여호와와 이름이 중요하였는데, 114편에서는 7절에서만 ‘주님’ ‘하나님’ 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여호와’ 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명한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강조하는 용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후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수 4:23)

시편 77편에서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시 77:16-17)

4절에서 말하는 산은 일차적으로는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 (출 19:18; 시 68:8)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온 땅에게 떨라고 말하였으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도 거기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임재하시는 일을 보며 가나안 땅도 온 땅과 함께 떨었습니다.

5-6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묻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바다와 강과 산들을 향하여서 ‘왜 뒤로 물러서느냐, 왜 뛰어오르고 요동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대답을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과거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7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신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시 74:12-15)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은 물을 흉용하게 만드는 혼돈의 세력 곧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이나 악어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파쇄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여서 일상생활의 리듬이 무너지고 혼돈 가운데 빠진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편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온 땅의 떨림과 주님의 구원

7 온 땅아, 너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곧 아굽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어라.
8 그분은 바위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고
차들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도다.

7절은 5-6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주님의 임재’ 를 말하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그 흐름을 멈추며 시내산이 요동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과거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실 일을 소망합니다. 과거의 구원은 현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2절에서 ‘그의’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아끼며 언급하지 않았던 그분이 ‘주님’ 이고 또한 ‘아굽의 하나님’ 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온 땅을 향하여 그분의 임재 앞에서 떨라고 합니다. 시내산이 요동하였던 일은 부분적인 것이었고, 이제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명합니다.

땅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떠는 데에는 거룩하신 분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요소도 들어 있고 그분을 기뻐하는 정서도 들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상반된 이 두 정서가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위를 연못으로 변하게 하시고 차돌을 샘물로 변하게 하심을 말합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위가 연못이 되고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위가 연못이 되고 차돌이 샘물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전개되었습니까? 바위나 차돌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사막도 점차 낙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연못가에는 풀이 나고 양 떼와 소 떼가 와서 물을 마시는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땅이 요동하고, 동시에 사막이 낙원으로 바뀝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자산(赫山)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사 41:18)

114편 마지막에 나오는 연못과 샘물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못과 샘은 모두 ‘홍용하는 물’이 아닌 잔잔한 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홍용하는 물’이 많이 언급되는데, 여기서의 물은 그러한 파괴적인 요소가 모두 없어진 물입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위협하던 홍해의 물과 요단강의 물줄기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잔잔한 물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러한 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이시자 만물을 온전히 구원하실 분이심을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큰 확신을 가지고서 찬송합니다.

4. 만물의 진통과 구원

114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일과, 그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성소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긴 일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이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향하기보다는 미래를 가리키고, 장차 온 땅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떨고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될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11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샘물과 연못처럼 흘러넘치는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홍해와 요단을 가르고 구원을 이루신 과거의 일들도, 그들이 큰물이 덮친 것과 같은 어려움에 빠질 때에 주님께 의지할 믿음을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참조. 시 77:7-9, 17-20).

114편에서 바다가 물러가고 산들이 뛰노는 일을 가리켜 ‘떠다’는 말로 요약하는데, ‘떠다’는 말은 단순히 몸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해산할 때에 산고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산고의 진통을 할 때처럼 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요즈음에는 여성분들이 병원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막연히 큰 고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산고’ (産苦)를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고통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22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바울 사도가 활동할 때에는 오늘날의 환경오염 같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는 사도로서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받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서, 자연 만물이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일을 고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 산이 진동한 일을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땅이 흔들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일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 27:50-51).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기는 하여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지진이었기에 이 세상에

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진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아드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땅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히 10:20). 우리는 114편에서 노래한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서 땅과 바다의 요동함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신약에 이르러 지진과 더불어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읽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에 땅을 흔들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제 장차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 나아감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진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가르쳐 준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의 정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히 12:26-27)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땅이 진동하였지만, 이제는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성소와 왕국으로 삼으신 뜻이 완성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의 일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가르쳤고, 또한 영원한 완성을 기대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시편 114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홍해-시내산-요단강-가나안 땅’ 을 한꺼번에 놓고서 이야기하였는데, 과거의 구원을 말하면서 미래의 완성될 구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를 부르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믿음으로 그 여행을 하도록 이 시로 격려하였습니다. 114편의 처음과 마지막은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장차 사막도 낙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신자들이 기대하면서 순례의 여행을 하도록 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게 하십니다(요 8:37-39). 우리 안에 계신 성신님께서 장차 우리의 낮은 몸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을 우리로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피조물이 고통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폭풍이나 지진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진통은 해산의 수고를 생각나게 하고, 동시에 완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장차 바위가 샘물로 변할 것이고 사막이 낙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4편을 부르면서 지나온 순례길을 회상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더 큰 구원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도 114편을 부르면서 장차 흔들림 없는 나라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의 성신과 함께 이 고통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바위가 변하여 연못이 되고 차돌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는 일은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일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오라!” 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2008년 5월 14일; 신학교 경건회, 2014년 11월 27일)